



**SEASON OF
CREATION**

2025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 창조세계와의 평화





**SEASON OF
CREATION**

2025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

창조세계와의 평화

목차

들어가는 글	3
에큐메니컬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	5
2025 창조시기 주제	9
2025 창조시기 상징	13
2025 창조시기 기도	14
에큐메니컬 기도회	16
창조시기 기념 방법들	28
옹호 활동	33
창조시기에 대하여	36
창조시기 운영위원들	37
별첨 1: 기념활동과 행사에서 상징을 활용하는 방법	39

들어가는 글

환영합니다!

올해 창조시기를 맞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특별한 에큐메니컬 연대의 시기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리스도교 가족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이 시기를 기념하면서 우리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이 특별한 시기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때입니다. 더불어 창조세계는 계속해서 창조되고 있으며, 그 창조 안에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라는 선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협력자로 공동의 부름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때입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창조세계를 돌보라는 공동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료 피조물이며, 하느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행복(well-being)은 지구의 행복과 상호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과 이곳에 함께 머무르는 만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기뻐합니다. 올해 창조시기의 주제는 “**창조세계와의 평화**”입니다.

이 안내서가 여러분이 창조시기에 대해 배우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에큐메니컬 기도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도문과 함께 올해의 주제와 상징을 실천하고 반영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별첨 1 참조)

이외에 웨비나, 기도회, 홍보물 견본, 창조시기 공식 SNS 계정 등의 관련 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SeasonOfCreation.org를 방문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시기 동안, 창조세계와 더불어 희망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기를 기념하며 옹호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시기 에큐메니컬 운영위원회



에큐메니컬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

그리스도 안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시기는 매년 개최되는 그리스도인의 축제로, 창조세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에큐메니컬 가족은 우리 공동의 집, 곧 하느님의 오이코스 Oikos를 묵상하고 돌보기 위해 하나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9월 1일부터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여러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창조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일부에서는 ‘창조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사랑받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에 끝납니다.

올해 우리는 이사야서 32장 14-18절을 바탕으로 한 “창조세계와의 평화”라는 주제로 일치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에큐메니컬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과 공동체가 올해 창조시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특별한 초대의 메시지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이 앞으로의 여정에 동참할 에큐메니컬 가족에게 힘을 북돋우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에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와 더불어 그리고 창조세계를 위하여 희망과 행동으로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조시기의 에큐메니컬 기도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가족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특별한 시기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고 거류민”(레위 25,23)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평화의 길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불의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고, 부당하고 값없는 빛을 해결하며,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가톨릭교회 로마 주교
프란치스코 교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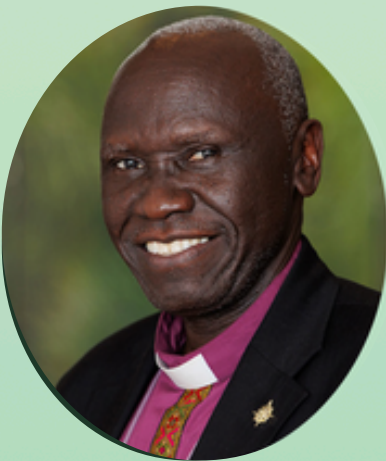
Photo by LWF/Magnus Aronson



우리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길 희망할 수 없으며, 희망해서도 안 됩니다. 거듭 말해왔듯이,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명령이자 공동의 책임입니다.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총대주교

Photo by N Papachristou



저희를 창조세계의 일원으로 삼아주셨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선한 청지기가 되며,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라는 부르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게 해주시어, 사람과 동물 자연세계를 보호하게 하소서.

성공회 사무총장
안토니 포고 주교

Photo by ACNS/Neil Turner



우리는 긴급하게 행동하라는 부르심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듣습니다. ‘창조시기’는 힘과 친교의 원천입니다.

루터교세계연맹 총무
앤 버가르트 목사

Photo by LWF/Arni Danielsson



성령께서는 ‘코스모테안드릭(cosmotheandric)’, 곧 어머니 지구로서 창조 세계의 거룩한 울부짖음, 산파이신 성령, 하느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 이 세 겹의 흐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 바오로와 함께 산파의 역할을 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 함께 축하합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박종천 목사

Photo by UMNS/Mike DuBose



우리는 주님께 속한 땅을 돌보고 보존하면서 책임감 있는 청지기와 성도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제리 필레이 목사

Photo by WCC/Albin Hillert



우리는 그분의 창조세계를 망가뜨려 창조주를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창조세계를 우리에게 태초 이래로 믿고 맡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한계로부터 계속 지켜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동교회협의회 사무총장
미셸 압스 교수

Photo by MECC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취약한 공동체들을 지원하기를 요청합니다.

행동하는 교회연맹 사무총장
루델마르 부에노 데 파리아

Photo by ACT Alliance



올해 ‘창조시기’에, 저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돌보고,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면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올해 창조시기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아 로차 인터내셔널 가나 국장
세스 아피아-쿠비

Photo by A Rocha Ghana



창조세계와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만물에 현존하고 계신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과 조화롭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창조시기’는 우리에게 지구와 더 깊은 친교를 불러일으키며, 온 창조세계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사랑과 치유, 화해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일도록 초대합니다.

세계개혁교회협의회 집행위원
헤핀 존스 박사

Photo by The Union of Welsh Independents

2025 창조시기 주제

해마다 창조시기 에큐메니컬 운영위원회는 그 해의 창조시기 주제를 정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창조세계와의 평화”이며, 이사야서 32장 14-18절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녕 궁궐은 버려지고 봄비던 도성은 황량해지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짐승의 소굴이 되어 들나귀들의 기쁨이 되고 가축들의 풀밭이 되리라. 그러나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리고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이사 32,14-18).

창조세계를 향한 전쟁

“정녕 궁궐은 버려지고 봄비던 도성은 황량해지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짐승의 소굴이 되어 들나귀들의 기쁨이 되고 가축들의 풀밭이 되리라”(이사 32,14).

예언자 이사야는 정의가 사라지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평화를 잃어버린 황폐한 창조세계를 그려냅니다. 폐허가 된 도시와 황무지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눈여겨볼 점은, 동물들이 한때 인간의 전유지였던 곳으로 주저함 없이 이동하여 자리를 잡는데, 이런 모습은 마치 인간이 정착하면서 동물들의 넓은 서식지를 빼앗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축들의 풀밭이 생기는 기쁨(이사 32,14 참조)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 분쟁 때문에 사람이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창조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정의와 평화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인간의 죄가 이 계획을 방해하여 창조세계는 호화로운 궁전에서부터 가난한 농지, 숲, 바다에 이르기까지 파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인간이 창조세계에서 멀어진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더 나아가 “버려지고 파괴된 궁궐과 망대”라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폭력적 행동을 헛되게 만드심을 알려줍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샬롬”은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이사야의 환시가 보여주듯이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인류 가족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창조세계와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많은 인간 활동이 창조세계의 파괴를 초래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일부 활동이 창조세계와 전쟁을 치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지역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 불가능한 생활 방식, 과도한 소비, 계속되는 환경오염, 버리는 문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특권층의 소비 행태, 착취에 기반을 둔 기업 운영, 지속가능성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제 이론 등입니다. 환경오염, 건강 위기, 삼림 파괴, 분쟁 지역의 자원 채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되었던 2024년 유엔 생물다양성 회의(COP16)는 “자연과의 평화”라는 현재 가장 필요한 주제로 이런 문제들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의 찬가’에서 땅을 우리의 누이며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머니 지구를 깊이 바라보고 배우며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구가 우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이 생명의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희망: “정의가 회복될 때 창조세계는 평화를 찾으리라”

“그리고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이사 32,16).

지구가 평화로워질 희망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활동적입니다. 이 희망은 기도, 행동, 회개(metanoia)와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 창조세계와 창조주와의 화해도 포함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4-18절은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느님 백성이 누리는 평화로운 창조세계를 보여줍니다.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땅의 풍요로움을 회복시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이사 32,17-18).

창조세계는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평화롭게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키워나가며, 이 책임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창조세계는 상호간 깊이 연결되어있기에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깨지기도 쉽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구는 왜 우리를 필요로 합니까? 미래 세대가 살 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160항 참조).

교회는 신학, 그리고 회개와 정의를 위한 예언적 부르심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농업,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와의 화해와 참된 정의를 통해서만 창조세계는 평화를 찾으며 이사야가 보여준 환시를 이룰 것입니다(이사 32,16-18).

카이로스(Kairos)의 순간: 니케아 신경 제정 1,700주년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니케아 신경*).

2025년은 니케아 신경 제정 1,7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25년 부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그들의 친교를 고백하고, 혼란스럽고 불평등하며 분열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며, 니케아의 부르심을 따라왔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교회 간의 평화와 친교의 끈이 되어왔습니다. 창조세계와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 오래되고 견고한 교회일치의 친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니케아 신경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사야서 32장 14-18절을 읽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가 예견한 광야에 부여될 치유의 영에서 성령을 알아봅니다. 또 이사야가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 증언한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이사 32,16)는 말씀에서 성자의 의화 활동을 깨닫습니다.

혼란스럽고 불평등하며 분열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고백과 니케아에서 확립된 교회일치의 친교로 힘을 얻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의 부르심을 따르는 동시에, 모든 창조세계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곳곳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에 갈등과 다툼 앞에서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이사 32,17)는 하느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 인용문은 381년에 개정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사용되었습니다.

행동으로의 부르심: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리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마태 5,9).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창조주를 경배하며,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일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조주의 협력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창조세계와 함께 평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살게 되리라”(이사 32,18). 하느님의 평화는 무조건적이며, 모든 백성과 창조세계를 위한 정의와 의로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평화는 일부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이사 32,15). 하느님은 모든 창조세계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피해(창세 3,17-19)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은 하느님의 너그러우심과 넘치는 은총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되시어, 우리가 창조세계에서 배우고, 창조세계를 존중하며 보호하도록 부르십니다.
- “burning desire is rampant”(이사 32,14). 전쟁, 기후변화, 또는 토지 수탈로 인해 땅과 생계를 잃어가는 공동체들의 부르짖음과, 지속불가능한 방식이나 빛에 짓눌린 이들의 부르짖음에 기도하며 응답합니다.
-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이사 32,15). 성령은 우리가 생태적 회심과 우주적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의로움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가치들을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질 결과는 반드시 더 위대하고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무엇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처음에 분쟁을 초래했던 상황만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 창조세계와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걸음 먼저 내딛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와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지구,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손상된 관계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리라”(이사 32,17). 도전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태 19,26)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희망은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기도와 식별, 그리고 투신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하느님의 평화는 우리가 정의와 연대, 화해, 그리고 창조세계와의 조화를 위해 일할 때 피어납니다. 본질적 변화는 인내와 이해, 그리고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 행동은 옹호 활동,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환경정화 캠페인 또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서로 협력하고 다양성을 토대로 평화를 건설해야 합니다.
- “광야는 과수원이 되리라”(이사 32,15). 삼림 복원 사업, 강 청소, 우물 설치처럼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은 분열된 집단들도 하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창조세계와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소서.

2025 창조시기 상징



창조세계와의 평화

2025 창조시기

2025년의 상징은 이사야서 32,14-18에서 영감을 얻은 “평화의 정원”입니다.

올해의 상징은 나무 위를 날아가는 흰 비둘기 한 마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왼편은 메말라 있고, 그 뿌리는 마른 땅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메마르고 황량한 풍경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무 오른편은 무성하고 푸르르며, 나무는 풍요로운 풍경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올리브 나뭇가지를 부리에 물고 옮기는 비둘기는 오른편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이는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착취된 땅에서, 비옥하고 번성한 좋은 땅으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인류는 본디 동산을 가꾸는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올해 창조시기를 통해 우리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과 평화를 증진하는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돌아볼 것입니다.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흰 비둘기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비둘기는 세상의 파괴가 지난 뒤 찾아온 새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접속하면 상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상징은 사막 생태계와 사막 생물들의 고유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들 또한 하느님 창조세계의 소중한 한 부분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사막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5 창조시기 기도

창조세계와의 평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공동의 집을 돌보도록 하나된 믿음을 주셨으니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저희는 지금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창조세계에서, 또 저희의 참모습에서
너무 멀어졌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의 탐욕과 파괴의 충동이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지구와 맺은 관계를 깨뜨렸음을 인정하나이다.

비옥했던 들판은 메마른 땅이 되고,
숲은 황폐해졌으며,
강과 바다는 오염되었나이다.
풍요롭던 공동체들은 고통으로 물들고
땅은 부르짖고 있나이다.

사랑하옵 그리스도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샬롬” 하며 평화를 주셨으니,
연민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북돋워 주소서.
주님과 함께, 온 세계 신앙공동체와 함께,
인류 가족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온갖 갈등을 종식시키고
깨어진 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위하여 일하도록
저희 마음을 밝혀 주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상처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피조물의 상처를 돌보고
세상이 입은 상처와 굳건히 연대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미래를 꿈꾸며
희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모여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가며
평온한 안식처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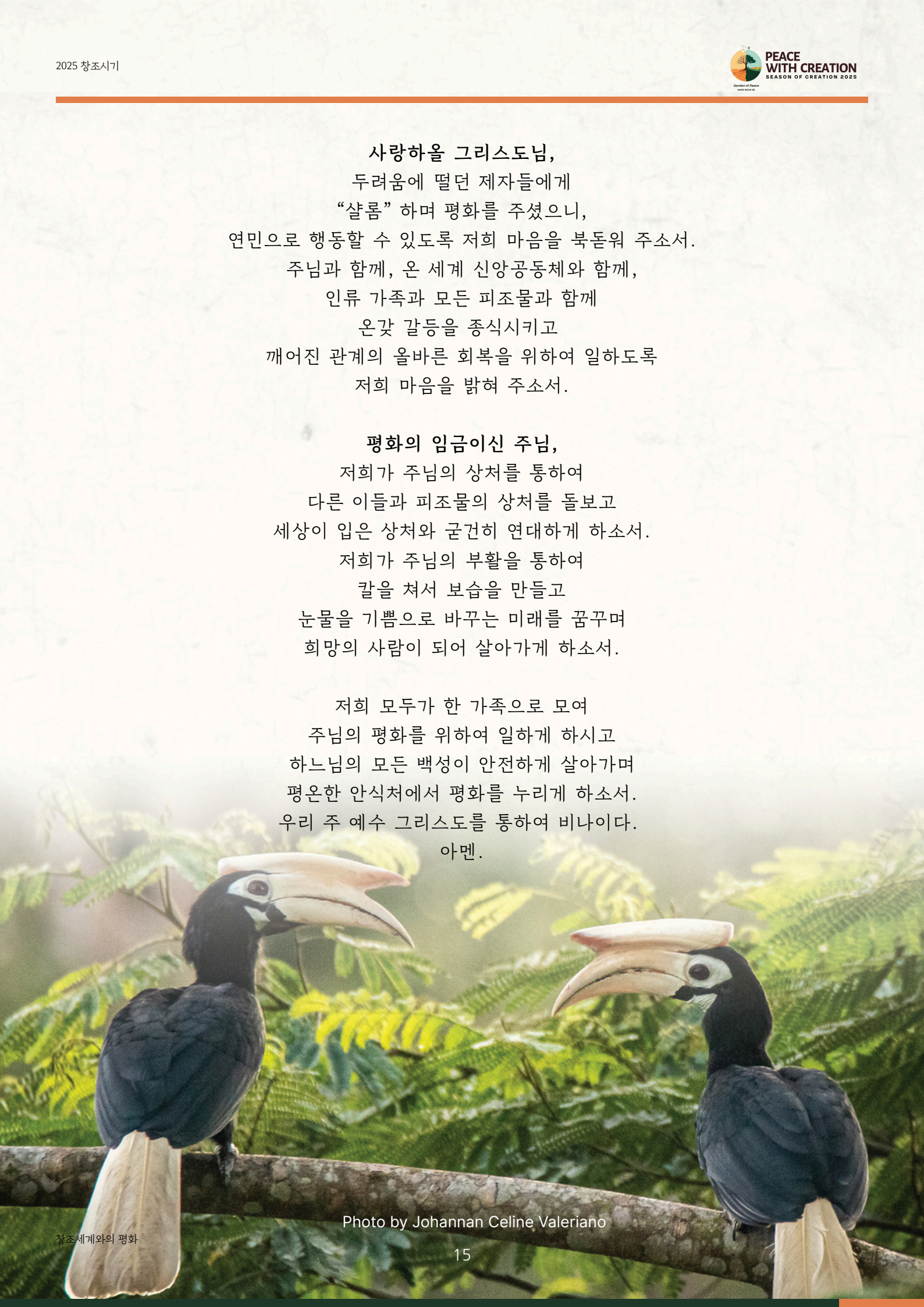


Photo by Johannan Celine Valeriano

에큐메니컬 기도회

들어가며

창조시기 동안 주최하는 행사에서 시기의 시작일과 마침일을 기념하기 위해, 또는 창조시기 기간 전체 동안 공동체 예배 중에 이 기도회를 개최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회 개최는 공동체가 창조시기를 기념하는 의미있는 방법이며, 일치하는 방법이기도합니다. 창조시기는 다양한 교파와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역의 다른 교파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운데서 성직자나 정의평화위원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도회를 공동 주최하도록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조시기 공식 웹사이트 <http://seasonofcreation.org>와 창조시기에 관한 다른 정보도 공유해 주십시오.

올해의 주제에 비추어, 사회 정의, 평화 구축, 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는 관점과 공헌은 기도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데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지원 모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공동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인쇄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홍보 자료 견본 및 유용한 다른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본 기도회에 참가하는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팀을 구성하여 기도와 묵상을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에큐메니컬 정신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례와 동시에, 인간과 창조세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오염, 천연자원의 과잉개발, 돌연변이 등)도 다루어 보십시오. 이러한 예시들은 이사야 32장 14-18절에서 영감을 받은 올해의 상징 “창조세계와의 평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정의를 실천하고 창조세계와 평화를 이루자”는 여러분 공동체의 의지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회 장소를 여러 가지 자연물로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 수자원, 생물다양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파괴나 오염을 나타내며, 사랑하는 창조세계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웃”들의 고통을 표현할 것입니다. 올해의 상징을 기도회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생각은 별첨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도회 순서에서 주송자 혹은 인도자가 읽는 부분은 보통 글씨로, 회중이 다함께 응답하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는 말

다음은 올해 창조시기 행사의 일환인 기도회의 도입부 예시입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인간의 많은 활동이 창조세계를 파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일부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창조세계와 전쟁을 치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트층의 소비, 자원착취에 기반을 둔 경영방식, 지속가능성보다 이윤우선의 경제 이론 등입니다. 오염, 보건 위기, 산림 파괴, 분쟁 지역에서의 채굴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지구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4-18절은 “그리고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이사 32,16)는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이 정의가 이루어질 때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창조세계를 보여줍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님의 말씀처럼, “희망이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조시기 행사의 일환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시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창조시기의 주제는 “창조세계와의 평화”입니다. 상징은 “평화의 동산”이며 이사야서 32장 18절의 말씀,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이사야 32,18)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를 주제로 하는 성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사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와서,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평화로운 거처와 안전한 집,
고요한 쉼터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 저희가 함께 모여 하느님의 창조에 감사드리오니,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나이다.

- + 와서, 주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만물의 화해자, 의로움의 길잡이
광야를 과수원으로,
과수원을 숲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 ◎ 저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갑니다.
창조세계의 치유를 위해서, 만민의 평화를 위해서.

- + 와서, 성령과 함께 걸어갑시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숨결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
땅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세계의 조화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 ◎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땅을 새롭게 하시며
온 창조세계와 평화를 이루라고 저희를 부르십니다.

- +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한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 ◎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
저희는 하느님 앞에 모여
모든 생명과 함께 하나되었습니다.
저희는 희망하고, 경배하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는 이로
살아가기를 약속합니다.

- + 주님께 올리는 저희 기도는 분향과 같게 하시고,
저희의 경배는
모든 창조세계를 위한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 ◎ 온 창조세계에 생명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웃인 인간과 자연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 저희는 한 자리에 모여, 모든 창조세계 형제 자매들의 희망과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 ◎ 바다의 파도와 나무의 물결과 한 마음으로 저희는 시편 139편 14절을 함께 노래합니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제네바 WCC 에큐메니컬 센터의 아침기도, 인도자 ACT)

화답송

『전례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모든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하늘 위의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물들아,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
- 그분이 명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네.
- 세세에 영원히 저들을 세우셨네.
법칙을 주시니 벗어나지 않네.
- 땅에서 주님을 찬미하여라.
용들아, 모든 심연들아
- 번개며 우박, 눈이며 안개
그분 말씀 받드는 거센 바람아
- 산과 산, 모든 언덕들
과일나무와 모든 향백나무들아
- 들짐승과 모든 집짐승
길짐승과 날짐승들아
-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홀로 높으시다.
그분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
- 그분이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높이셨네.
-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 그분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기에 창조를 주제로 하는 성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백으로의 초대

은 창조세계가 하느님 찬양으로 가득하니
우리도 기쁨과 정의와 평화로 함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갈등과 파괴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갈등과 파괴를 일으키며
자주 평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지구 곳곳에서 거대한 해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파괴의 규모는 다름지라도
창조세계와의 깊은 갈등이 빚어낸 희생자들 가운데 바로 우리 인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름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와, 화해의 사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새신을 청합니다

고백의 기도

창조주 하느님, 바다의 하느님, 땅과 그 안에 가득찬 것들의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손수 인간을 빚으시고, 저희에게 당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땅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어
저희의 정체성과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힘을 주시어 당신께서 만드신 것들의 수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그러나 저희는 하느님을 실망시키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남용했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더럽혔습니다.

하느님의 신뢰를 배신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의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지구에 저희가 행한 일을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바다에 저희가 행한 일을 용서하소서.
 땅 위에서, 하늘에서, 깊은 바다에서
 하느님의 피조물들에게 저희가 행한 일을 용서하소서.

자비의 하느님, 들어주소서.
 잘못된 농업, 오염, 채굴, 벌목으로 황폐한 사막이 되어버린 땅의 부르짖음을.

녹은 빙하로 해수면이 상승해 바다에 잠기는 섬들의 부르짖음을.

폭풍과 가뭄으로 인한 어머니 지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생명의 하느님, 상처 입은 지구를 치유하소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움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어,
 땅과 바다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오시어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분,
 성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임스 바그완 목사. 피지, 2012.

source: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prayer-cycle/oceania>

용서의 선포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소서.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이사 32,18)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에게 은총과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기뻐하고 신뢰합시다.
 아버지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살라고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갑시다.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가를 부르십시오.

감사기도

- + 생명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놀랍고 위대하며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피조물에 감사드립니다.
- ◎ 이 놀라운 세상에 머물고 기뻐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 + 저희에게 맑은 공기를 전해주고, 더운 날 그늘이 되어주는 숲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밝은 빛과 에너지를 주는 태양과,
대지에 생기와 양분과 상쾌한 내음을 더해주는 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저희에게는 양식을, 많은 동물에게는 생계를 제공하는 비옥한 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저희로 하여금 이 지구 공동체가 모든 생명의 민주적 터전이며,
이는 땅을 일구는 사람들의 지역 경제인
살아 있는 경제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 + 저희가 공동선을 우선으로 실천하여 자연과 각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할 힘을 주시고,
모든 존재가 자신의 생존을 누릴 타고난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 ◎ 저희가 모든 생물종과 민족과 문화는 각자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
이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 저희가 믿음과 희망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소서.
창조세계가 제공하는 자원을 소중히 여기며,
창조세계의 유한성을 깨달아 당신의 피조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 ◎ 저희가 생명을 위해 싸울 용기를 주시고,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이들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이들 앞에서 굴하지 않게 하소서.

- + 주님께 저희 모든 삶을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료 제공: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연합복음 루터교회)

여기에 창조를 주제로 하는 성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말씀 봉독

『성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독서 후 잠시 침묵합니다

제 1독서(이사 32,14-18)

정녕 궁궐은 버려지고 볕비던 도성은 황량해지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짐승의 소굴이 되어 들나귀들의 기쁨이 되고 가축들의 풀밭이 되리라. 그러나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리고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

침묵 중에 성찰하기

제 2독서(필리 4,5-7)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침묵 중에 성찰하기

제 3독서(요한 14,15-17)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침묵 중에 성찰하기

강론

이사야 32,14-18에 기초한 “창조세계와의 평화” 주제와 상징

여기에 창조를 주제로 하는 성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十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물봉헌과 봉헌기도

생태 복원이나 기후 정의의 측면에 기여하는 특정 프로젝트나 사목을 위한 예물 봉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지역 서식지의 평화와 휴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동식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를 주제로 하는 성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편지향기도

+ 주 하느님,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하느님께 청하도록 도와주소서.

1.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주님의 피조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풀과 꽃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며,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저희가 주님 뜻에 따라 이 창조세계를 성실하게 가꾸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인류와 모든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존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소서.
서로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웃의 존엄성을 지지하고 돌보게 하소서.
저희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 자신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거대하고 풍요로운 세계의 한 부분임을 보게 하소서.
저희가 이해하고 책임을 다하며 가치있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3.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온 세상에서 생명의 전달자가 되고 주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을 용기로 채우시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격려를,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당당히 선포하게 하소서.

위기에 처한 세상의 일원인 주님의 교회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일치의 힘을 주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4. 병든 이들과, 궁핍한 이들, 억눌린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과 갈등, 학살과 생태계 파괴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이웃과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당신께 부르짖는 이들과,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정의를 베푸소서.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어 저희가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대할 수 있도록 하소서.
침묵 속에서 불의를 견디는 이들을 위해 행동할 용기를 주시며,
저희 발걸음을 정의롭고 항구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과 인류, 교회와 모든 이들의 미래가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가 참된 희망과 정의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자료 제공: 헝가리 에큐메니컬 기도회, 주자 콜타이 박사. 창조시기 에큐메니컬 실무 그룹)

주님의 기도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기도회 마침과 강복

+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 찬양과 흠송을 바치며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과 그 모든 권능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해와 달과 모든 별이,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천상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만물들의 무리가,
천사들과 대천사들 하늘의 군대가 모두 노래하고,

승리의 찬미가로 온 세상이 환호하며, 주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자료 출처: 안티오키아 시리아계 마론파 교회 전례. 성 야고보 아나포라)

+ 저희도 그들과 온 창조세계와 함께 소리 높여 외치나이다.

◎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평화로이 가서 창조세계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한 분이시며 영원히 영광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창조시기를 기념하는 방법들

창조시기는 기념, 회심, 그리고 헌신을 통해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지내는 이 에큐메니컬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공동의 집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초대합니다.

연초부터 창조시기를 염두에 두면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를 더 잘 준비하게 되고, 지역 단체와 모임에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계획하는 동안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의미있는 만남, 꾸준한 실천, 깊이 있는 경청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우리의 에큐메니컬 헌신을 더 힘있게 만들고, 관리자인 우리의 역할과도 잘 맞습니다.

창조시기를 기념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에큐메니컬 창조시기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마련했으니 아래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참고자료가 필요하시면 [창조시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2025 창조시기 한국 천주교회 단체들의 활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시기 기념 지역 행사

창조시기 시작과 마지막 날, 이들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지역 기념행사를 개최하면 좋습니다.

- 9월 1일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신비의 상징으로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특별한 때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파에서 이날을 ‘창조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기념하며, 일부 교파에서는 동방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창조 축일’로 기념합니다. 이날에서 창조시기가 기원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영감을 주었으며, 한 달 동안 이어서 창조시기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 10월 4일은 생태 분야의 수호성인이며 그리스도교의 많은 교파에서 사랑받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입니다. 올해 2025년은 그분을 대표하는 “피조물의 찬가” 8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이 축일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창조시기 동안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모든 날이 행사를 개최하기에 좋은 때이니, 9월 1일이나 10월 4일이라는 날짜에 국한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찬례

성찬례 준비

- 시작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예: 세계총대주교나 교황의 올해 창조시기 메시지), 또는 각자의 교회 전통에서 발췌한 문서 중 일부를 읽으십시오. 이날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례 제안

- **참회:** 환경 파괴에 대한 슬픔과, 하느님의 창조세계에 맞선 우리 죄에 대한 회개를 표현합니다. 연관되는 이미지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침묵:** 야외에서 진행할 경우, 다른 피조물들이 부르는 “찬미의 노래”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상징:** 자연의 상징물(나뭇가지, 열매)을 빵과 포도주와 함께 봉헌 예물로 제대에 올려놓으면서 창조세계와 함께 합니다.
- **강론(설교):** 신부님이나 목사님께 강론(설교)에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과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언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어 설교 자료는 여기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도:** 보편지향기도(신자들의 기도)에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지향을 포함하십시오.
- **시각 자료:**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상징하는 “천지 창조”를 예술적으로 꾸며 보십시오. 이 중요한 주제를 가르치는 기회가 됩니다. 완성작은 교회 내부나 주변에 잘 보이도록 전시하십시오.
- **자연의 소리:** 영성체를 할 때, 성체 성가 대신 자연의 소리(예: 새 소리, 물 소리 등)를 활용하여 들어보십시오.
- **연극과 무용:** 청(소)년들이 이 주제로 연극이나 전례 무용(울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야외 행사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를 가르칠 걸세.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에게 알려 줄 걸세. 아니면 땅에다 대고 말해 보게. 그것이 자네를 가르치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걸세.”(욘 12,7-8)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풍성하게 기념하기 위해 야외 미사(예배 또는 예식)를 드려보십시오. 산, 강, 나무 등의 창조세계는 그 자체로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이 창조된 모습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연 한가운데서 경배를 드리며 우리는 이 끝없는 찬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야외 행사에 대한 제안

- **묵상 산책 또는 묵상 순례** : 모든 생명과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는 묵상 산책을 준비해 보세요. 목표는 아래와 같이 잡아볼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서 감사의 마음과 자연 보호에 대한 다짐에 집중하기
 - 환경이 파괴된 장소에서 이를 애도하며 참회하고, 회복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중심을 두기
- **자연을 지키는 이들과 동반하기** : 지역의 자연 보호구역이나 야생 동식물 보호지역을 방문해보십시오. 공원 관리인, 산불 진화팀, 농부, 산림관리인, 양을 치는 분, 양봉을 하는 분, 경찰대 등 자연을 지키는 분들을 초대하여 경험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 **정의와 사회에 중점을 두는 단체와의 만남** : 정의, 평화, 화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교 단체를 초대하여, 함께 성찰과 나눔을 해보십시오.
- **침묵의 시간** : 잠시 멈추어 서서 창조세계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말없이 그 찬미에 동참해 보십시오.
- **말씀과 기도 산책** : 소그룹으로 자연 속을 걸으며 생태 관련 성경 구절을 공부하거나, 함께 피조물을 위한 기도를 바쳐보십시오.
- **야외 경배** : 여러분의 교회 전통과 날씨에 맞추어, 야외에서 기도회나 성찬례를 가져보십시오.
- **창조세계의 길(Via Creation)** : 창세기의 신비와 과학적 성찰을 조화시킨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창조세계의 길”을 바쳐 보세요. 이 기도는 “십자가의 길” 형태를 따라 창조세계의 신비를 묵상하는 공동 기도입니다.

교육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 활동들 조정하기

“생태학이 오늘날 우리 문화에 팽배한 것과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코 자연에 대한 존중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참회의 행동, 익숙해진 삶의 방식 변화, 그리고 창조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교육, 깨달음, 그리고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더욱 증진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소비하는지 성찰하게 하며, 소비주의의 영향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격려합니다.

활동 예시

- 우리 지역 청소하기
- 산림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나무 심기
- 재활용 운동
-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공동체/본당 텃밭 가꾸기
- 환경보호 행진 또는 캠페인 조직
- 환경 관련 영화 상영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 어린이, 청(소)년 대상 글쓰기 또는 그림 그리기 대회 진행
- 창조세계를 주제로 한 콘서트나 예술 공연 기획
- 창조세계 보호 관련 성경 공부
- 녹지 조성 활동을 돌아보는 공동체 산책
- “**평화의 동산**” 지정과 기념 표지판 설치
- “**에큐메니컬 저녁기도**”로 기도하기
-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평화를 주제로 한 미술, 시화전 개최

어린이·청(소)년 대상 다양한 활동

- 비둘기와 올리브 가지 그림 그리기 및 작품 발표
-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평화 구축에 관한 토론 워크숍 개최
- 창조세계 보호를 주제로 한 **금요일 저녁 에큐메니컬 청(소)년 모임** 추진
- 환경보호 교육이 포함된 에코캠프 기획

더 많은 제안은 **별첨 1**을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교파에 맞도록 준비된 자료를 포함하여 더 많은 영성 자료와 전례 자료를 원하신다면 **창조시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행사에 상징 활용하기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와 일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함으로써 행하게 되는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제리 필레이 목사)

창작 활동

비둘기와 올리브 가지, 그리고 “평화의 동산” 상징을 활용한 다양한 공예작품 및 창작 활동 아이디어를 찾아보십시오. **별첨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물고 평화의 정원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비둘기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과 연대, 평화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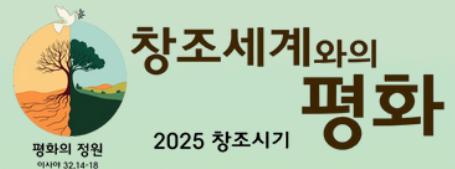
창조시기 공식 로고, 올해의 상징은 여기 있습니다.

(<https://seasonofcreation.org/resources/>)



경험 공유하기

사진과 영상 공유



- 공동체가 창조세계를 위해 행동하는 순간을 담아보십시오. 창조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전 세계인의 마음을 북돋울 수 있습니다.

공유 안내

- 개인 사진은 공유 전 반드시 동의를 받으십시오. 어린이 사진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근접 촬영을 삼가하십시오. #SeasonOfCreation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사진이 SeasonOfCreation.org에 게시됩니다.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공유

- 행사 계획과 행사 진행 사진 또는 이야기를 해시태그 #SeasonOfCreation와 함께 게시하면, 공식 웹사이트에 업로드됩니다.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에서 창조시기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보십시오. 창조시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 블로그에 여러분 공동체의 창조시기 기념 행사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해시태그 #SeasonOfCreation를 붙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공유는 우리 공동의 집을 아끼고 돌보는데 다른 이들도 마음을 모으도록 도와줍니다.

옹호활동

채무에서 희망으로

서론

올해 창조시기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예언자적 정신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세계적 채무 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을 요청할 것입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기후위기 비용과 정부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여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빈곤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채무 상환금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채권 국가로 흘러가는 이 불의를 바로잡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추가 채무를 막고, 기후 변화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취약한 공동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의의 길을 추구합니다.

이 활동 안내서는 여러분과 공동체가, 서로 맞물려 있는 채무와 기후 위기를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여기에는

1. 채무와 기후 금융의 주요 쟁점에 관한 개괄
2. 행동 제안
3. 행동을 위한 참고 자료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시기 웹 사이트](#)에 더 많은 옹호 활동 자료들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개괄

무엇이 문제인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가난하고 기후에 취약한 나라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인 세계 채무 위기는 각 나라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에서는, 대외채무 이자액이 2013년 이후 4배가 되었고, 2023년에는 사상 최대인 34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공공 채무 상환액은 증가한 반면, 핵심 분야 투자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채무 위기와 기후 위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에 더 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채무 위기에 처해 있다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포함하여 공공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기에, 가난한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 홍수, 사막화, 더 강해진 폭풍 등의 새로운 현실에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국가들은 심각한 기상 이변을 만난 후에는 복구를 위해 돈을 더 빌리게 되어 부채는 더 늘어나고 맙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나라는 기후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는 대신, 그 위기를 야기한 부자 국가들에게 빚을 지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많은 국가가 이 채무 상황을 위해 화석 연료를 포함한 천연자원의 채굴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자 국가들이 기후 금융의 70%를 지금까지 대출 형태로 제공하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채무는 채무자국 다수의 책임이라기보다, 현재 경제 체계에 깊이 스며든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죄로 물든데다 억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소수에게 극단적인 부를 몰아주고 다수에게 빈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화된 국가들이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소비해 왔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화석연료의 사용을 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사실 산업혁명은 식민지화와 노예제도를 통해 착취당한 흑인과 유색인종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천연 자원이 식민지 국가에서 부자 나라로 빠져나갔습니다. 식민지화되었던 많은 국가는 독립을 이루었을 때, 식민지화 시켰던 나라가 떠안긴 부채를 짊어진 상태였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또한 가난한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한 금융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부채의 악순환을 초래했고, 채권국들은 가난한 국가들을 착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2025년은 희년의 해방적 가치에서 영감을 얻은 희년 채무 캠페인의 25주년입니다. 희년의 성경적 개념은 억압의 영원한 반복을 멈추고자 합니다. 희년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 사이의 평화, 그리고 창조세계와의 평화. 이런 관계들은 오늘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깨어졌지만, 우리는 채무와 기후 변화로 고통 받는 국가들에게 회복적 정의가 가능하다는 희망으로 일치합니다.

1. 저소득 국가에게 경제적 조건 없는 채무 탕감
2. 남반구 국가의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채무 누적을 원천적으로 막는, 보다 공정한 세계 채무 체계
3. 취약한 공동체가 이용 가능한 적절한 기후 금융, 대출이 아닌 지원금 방식으로 제공

행동하기

대외적 채무 해결을 위한 지혜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

사랑과 은총의 하느님

저희가 사람들을 가난과 빛으로 움아매는 불의에 맞서 행동할
힘과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이러한 조건을 영속시키는 구조에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힘을 주소서.

저희 마음에 당신의 자비와 정의를 불러일으켜 주소서.
저희가 희망의 전달자가 되고 변화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저희가 함께 공정과 형평성에 뿌리를 둔 해결책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억압받는 이들을 일으키며 희망을 심어주는 경제 체계가 마련되고,
모든 나라가 채무의 사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미래를 일구어 가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
저희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난이 극복될 수 있다는 신앙 안에 흔들림 없이 서 있게 하소서.
아멘.

찰스 칠루프야 신부, 예수회, 잠비아(카리타스 인터내셔널)

1. 여러분의 지역 교회 공동체에서 채무와 기후 문제를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적극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의 공동체가 채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창조 질서 보전과 경제 정의를 위한 지역 활동에 개인적이나 교회 차원으로 참가하십시오.

지역 사회 수준을 넘어 여러분이 개인적 또는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제안입니다. 다음의 모든 실천 방법은 “채무를 희망으로 바꾸기” 캠페인 안내집에서 발췌했으며 이 [웹사이트](#)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실천 항목별 도움 자료는 해당 안내집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다음 [링크](#)에서 청원에 서명하고, “채무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전 세계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4. 행동을 요청하는 상징적 의미로 “빛의 릴레이”에 동참하십시오.
5.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공유하십시오
6. 부채 감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상황에 맞게 각색하여 정책 담당자에게 보내십시오.
7. 성경공부 모임을 만드십시오

창조시기에 관하여

창조시기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교 가족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치합니다. 창조시기 동안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역사

1989년에 동방정교회 디미트리오스 1세 총대주교님께서 9월 1일을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2006년에 유럽의 다른 주요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이를 수용하였고,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로마 가톨릭교회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하셨고, 2019년에는 신자들에게 에큐메니컬 창조시기를 기념하도록 장려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9월 1일부터 서방 가톨릭교회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인 10월 4일까지의 기간을 “창조시기”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피조물의 찬가”를 지으셨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의 후보 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피조물을 돌보도록 초대받습니다.

2003년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 2007년 시비우에서 열린 유럽 제3차 유럽 에큐메니컬 회의, 그리고 2008년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최근 몇 년간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자들에게 한 달 동안 계속 되는 이 기념 시기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2012년에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 행사 일정표

전 세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창조시기를 기념하는 가운데,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창조시기 웹사이트](#)에 있는 국제 행사 일정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월 1일: 창조시기 개막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

함께 우리 공동의 큰 뜻을 기쁜 마음으로 기념하는 온라인 기도회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CET(중부유럽 표준시)로 15시에 열립니다.(한국시각 22시) 자세한 내용은 [SeasonofCreation.org](#)와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온라인 기도회

전세계의 신앙인들이 창조시기 에큐메니컬 청년 위원회가 준비한 온라인 행사에 함께 모여 우리의 한 달 간의 여정을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은 [창조시기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CET(중부유럽 표준시)로 15시에 열립니다. (한국시각 22시)

창조시기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창조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세계교회협의회, 루터교 세계연맹, 찬미받으소서 운동, 성공회 환경연대, 로잔/세계복음주의연맹 피조물 돌봄 네트워크, 세계 개혁신교회 협의회, 유럽 그리스도인 환경네트워크, 행동하는 교회연맹, 아 로차 인터내셔널, 세계 감리교회협의회 및 크리스천에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컬 네트워크인 운영위원회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에서 말씀하신 긴급한 요청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요청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대화”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보편적인 연대에 대한 필요”입니다. 이 노력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귀한 지도를 해 주시는 창조시기 에큐메니컬 자문위원회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시기 자문위원회

Rev. Dr. Dave Bookless	A Rocha
Rev. James Baghwan	General Secretary Pacific Council of Churches
Rev. David J.M.Coleman	EcoCongregation Scotland
Dr. Celia Deane-Drummond	Laudato Si’ Research Institute, Campion Hall, University of Oxford
Tony Franklin Ross	Ecumenical Relations, World Methodist Council
Bishop Graham Usher	Church of England lead Bishop on the Environment
Rev. Prof. Dr. Harold D Hunter	Chair, Pentecostal World Fellowship Creation Care Task Force
Dr. Hefin Jones	Executive Committe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Most Reverend Serafim Kykotis	Greek Orthodox Archbishopric of Zimbabwe and Angola
Br. Alois Löser	Taizé Community
Sr. Patricia Murray IBVM	Executive Secretary, International Union Superiors General
Rev. Dr. Peter Pavlovic	Study Secretary, 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
Rev. Dr. Chad Rimmer	Rector Lutheran Southern Seminary
Dr. Paulo Ueti	Anglican Alliance
Dr. Ruth Valerio	Embrace the Middle East
Derrick Weston	Creation Justice Ministries

창조시기 운영위원회

Dr. Louk Andrianos	World Council of Churches
Fr. Antoine Al Ahmar	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Cecilia Dall'Oglio	Laudato Si' Movement
Naomi Foxwood	Christian Aid
Henrik Grape	World Council of Churches
Rev. Dr. Eva Harasta	Lutheran World Federation
Keziah Kariuki	ACT Alliance
Rev. Dr. Tamas Kodacsy	European Christian Environmental Network
Rev. Dr. Rachel Mash	Anglican Communion for Environmental Network
Suzana Moreira	Laudato Si' Movement
Rev. Sikawu Makubalo	Methodist Church of Southern Africa
Kuki Rokhum	A Rocha International / Lausanne WEA Creation Care Network
Wilfer Rigamoto	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
John Paul Roberts	Green Anglicans
Dr. Tebaldo Vinciguerra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Holy See)

2025 창조시기 안내서에 도움을 주신 분들

창조시기 안내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들이 작성하고 편집했습니다. 본 안내서 개발과 검토 및 편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Br Benoit - Comunidade de Taizé

Joana de Pina Cabral - Igreja Lusitana/Comunhão Anglicana, Portugal

USPG - Sociedade Unida dos Parceiros no Evangelho

우리말 번역 김경은 지혜 수녀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검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팀
 편집 가톨릭기후행동 (LaudatoSiMovement Korea)

별첨 1: 기념 행사나 활동 시 상징 활용법

행사와 활동

•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소개 및 활동 계획 모임

올해 창조시기의 주제와 활동 계획을 소개하는 행사를 준비하십시오. 먼저 이사야서 본문 설명으로 시작하면서 올해의 상징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다음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거나 소그룹 토론을 진행해 보십시오. 참가자들이 이번 창조시기의 주제와 상징에 대한 자신의 성찰, 그리고 창조시기 동안 함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 연관성 찾아보기

환경 파괴와 폭력 또는 갈등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생태 복원, 정의, 평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토의해 보십시오. 세계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 요소 간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파악해 보십시오.

• 이사야서 32,14-18에 대한 창의적 성찰

참가자들이 이사야 32장 14-18절을 바탕으로 짧은 연극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기획해 보십시오. 황폐함(이사야 32,14)에서 회복과 평화(이사 32,16-18)로의 전환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 신앙과 정의의 증인들 기리기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를 활용하여, 우리 공동의 집과 가장 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기도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신앙의 선조들, 토착민 공동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적·환경적 정의에 헌신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기릴 수 있습니다.

• 이전의 나무심기 활동 점검하기

2024년 창조시기에 묘목이나 토종 씨앗을 심었다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되돌아보십시오. 각자의 체험과 깨달음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황폐한 지역에 씨앗 심기

사막에서 풍요로움으로의 전환이라는 이번 창조시기의 상징에서 영감을 받아, 허브, 채소, 과일의 씨앗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환경 복원을 위해 황폐하거나 훼손된 지역에 씨앗을 심는 활동을 적극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정원 만들기

공동체 안에 정원을 조성하기 적합한 장소(예: 공원, 본당이나 수도회 부지, 예전 산업 부지, 방치된 공터 등)를 찾아보십시오. 알맞은 장소라고 밝혀지면, 가족, 지역 NGO, 토지 소유주, 학교, 성직자, 원예·농업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정원 또는 공유 정원 조성 계획을 세우는 자리를 마련해보십시오. 지역 사회와 생물다양성 모두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공예 작업

정원: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모든 연령대가 모여, 이사야서 32장 18절에 나오는 “걱정 없는 안식처”나 “평화로운 거처”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미술 재료를 제공해 보십시오.

참가자들이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우리 서로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느끼는 조화로우심을 작품에 담아보도록 하십시오.

비둘기: 또는, 공동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비둘기 상징에서 영감을 받아 작은 모형이나 스케치, 또는 채색한 그림을 만들어보도록 권해 보십시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모임 기간 동안 이 비둘기로 교회 내부 장식을 하거나 정원, 들판, 숲에 야외 전시를 해보십시오.





**SEASON OF
CREATION**